# INSIDE WAS TO THE REPORT OF THE PROPERTY OF TH

2016. vol. 124



## Yes! Top News 어느 분야에서든 최고의 자리를 지킨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지 하 최고의 뉴스를 만나는 길은 그리 어려운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모든 언론학자가 9년 동안 한결같이 꼽은 가장 공정한 뉴스, YTN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한국 최고의 뉴스 채널, YTN입니다.



#### In Newsquare

#### 모바일 이동방송의 부활 - HD DMB I 이승엽 04

YTN Innovation begins I 이승현 06-

#### **Exclusive Now**

- YTN의 힘으로! 공정한 수능 토대 만들어 I 조성호 08
- 수술실에선 파티를, 원장실에선 탈세를 1 김평정 10

#### YTN Rookies

- 사람 냄새 풍기는 기자를 꿈꾸며 | 변영건 12
  - YTN인으로 빛나기 I 김영수 13

-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 〈구석구석 코리아〉 | 전현지 14 실내공기는 '공부해'가 책임진다 〈맑은 공기를 부탁해〉 1 장소영 16
  - 특파원 귀국 리포트
  - 서울의 미국. 워싱턴의 미국 | 왕선택 18

#### 지국은 지금 \_ 경남취재본부

지국에서 본부로 | 박종혁 20

#### 부서탐방 \_ 사이언스TV국 과학뉴스팀

- 정말, 과학이 쉬워질 수 있을까요? 1 이동은 22
  - 7월, 8월의 자랑스러운 YTN인 상 23

## SIDE

**CONTENTS** 

09 Sep - 10 Oct 2016/vol.124

#### 홍경한의 아트스퀘어 \_ 최영욱 작가

24 홍경한 I '달항이리'에 담긴 삶의 연. 그 길을 그리다

#### 앵커의 변신 \_ 박석원 앵커

최보영 | 앵커가 된 태양의 후예

#### 유석현의 클래식 속으로 \_ 드보르작 교향곡 9번 e단조 '신세계에서'

28 유석현 | '신과 사랑, 조국'만을 생각했던 드보르작

#### 글로벌 온마이크 \_ 김호성

30 김호성 | 미나레트 … 사막의 등대

#### 자라섬 불꽃 축제

32 변재철 | 자라섬 불꽃축제 2016을 마치고

#### 최광희의 News In Cinema \_ 트루스

34 최광희 | 진실은 어디에?

#### YTN은 촬영 중

- 36 최재용 I 천만요정 오달수? 뉴스요정 YTN!
- 38 YTN 이모저모





작가 최영욱의 작품에서 '카르마'는 '입'보다는 '연'에 가깝다. 그리고 그 연 가운데서도 '인연'에 방점이 있다. 다시 말해. 있는 듯 없는 듯 어딘가 어수룩해 보이 면서도 후덕한 형상이 품고 있는 것은 순환하는 인생, 우리네 삶의 무수한 교차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균열의 선들은 정해진 운명 속에서 마주하는 삶의 희로애락과 갈음된다. 어쩌면 '달항아리'처럼 둥글게, 모나지 않게 평범하고 살아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마주하는 슬픔과 기쁨, 절망과 환희, 좌절과 희

발행인 조준희 편집장 최재용(커뮤니케이션팀) 03926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 뉴스퀘어 T02.398.8000 제보 02.398.8585 디자인·인쇄제작 아이아트플러스 02.2272.9807





지 고화질 DMB 방송 출범

## 모바일 이동방송의 부활 - HD DMB!

이승엽 팀장 | YTN DMB 정책사업팀

DMB 시청자를 대상으로 이용행태조사를 해보면 가장 큰 불만은 항상 화질이다. 2005년 말 DMB가 세계 최초의 모바일 이동 방송으로 등장했을 때만 해도, TV를 들고 다니며 본다는 것 자체가 차별적인 서비스였지만, 고화질 영상을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오래전에 달라졌다. DMB 단말기는 지금까지 1억대 이상 팔렸음에도, 평균 시청시간은 제자리를 맴돌거나 오히려 뒷걸음질쳤고, DMB는 '필살기'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필살기의 이름은 '고화질(HD) DMB'이다.

시작은 어려웠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어떤 기술로 고화질을 이뤄내야 할지, 사내의 적은 인력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할지 막막했다. 비용이 많이 들어도 안 되는 일이었다.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았다. YTN DMB 홀로 하긴 너무 벅찼다. 다른 방송사들과 힘을 모았다. 어렵게 자체 기술을 개발하는 대신 국제 표준(HEVC)을 가져다쓰기로 했고, 송수신 개발 검증은 정부 R&D 지원사업을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인코더 포함 장비도 갖추고, YTN 뉴스퀘어 옥상엔 실험방송을 위한 송신시설도 갖췄다.

실험국 운영은 성공적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표준 제정을 이끌어 냈다. 또 단말기 제조사들도 회사별로 초청해서, 고화질 DMB의 품질을 보여주고가능성을 설득했다. 제조사들은 샘플 단말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추운 겨울 내내 필드테스트를 통해 HD DMB 채널 확보기술 검증은 결실을 맺었다.

사실 화질보다 중요한 것은 수익모델을 찾았다는 점이다. 새로운 고화질 DMB에는 CAS(제한수신시스템) 솔루션을 적 용했다. 단말기 제조사가 방송사에 CAS로열티를 소액 지급 하는 방식이다. 제조사들은 처음에 크게 반발했고, 그 반발에 방송사들도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DMB 시장의 가능성에대해 끈질기게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결국 하나씩 둘씩 돌아서기 시작했다. 희망이 보였다.

지난 8월 1일 우린 HD DMB 본방송을 송출했다. 8월 삼성 전자 스마트폰의 펌웨어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시작으로 9월 엔 LG스마트폰,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양대업체인 팅크웨어 와 파인디지털이 HD DMB를 위한 업그레이드를 제공했다. 기존 제품 뿐 아니라 8월 19일 출시된 삼성 갤럭시 노트7부 터는 HD DMB가 아예 기본 장착돼서 나온다.

아쉬운 점도 있다. 지상파 3사의 딴죽이다. 당초 8월 1일 같이 본방송을 하기로 했던 지상파 3사는, 아직 기술방향도, 정책방향도 감도 못 잡고 있는 UHD의 모바일방송 때문에 HD DMB 송출을 미루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푹(Pooq) 때문이다. OTT라는 통신형 방송서비스를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무료로 고화질 서비스를 하기 싫은 것이다. 회사마다 속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방송은 공공서비스'라는 이유로 값싸게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사로서는 정말 뻔뻔한 일이다.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다.

DMB는 이제 두 번째 탄생을 맞았다. 업계도 2016년에 새로이 상품을 시장에 선보이며 새로운 성



장의 용틀임을 준비하고 있다. 집 떠났던 시청자와 광고주가 되돌아 올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초기 반응은 예상보다 좋다. '화질이 선명하다', '자막이 깨끗하다', '인터넷 스트리밍보다 화질이 오히려 더 좋다'. '데이터요금 없이 고화질을 볼 수 있어 좋다' 등등 칭찬일색이다. 서비스가 이만큼 좋다면, 더 많은 국민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남았다. 빅 메이커 말고도 모든 스마트폰과내비게이션에서 볼 수 있게 하고, 뒤로 미뤄놓았던 음영지역해소를 위해서도 더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고화질 이동방송의 대표 주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렇게 HD DMB는 성공해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는 단지 YTN DMB가 HD DMB 출범에 가장 큰 역할을 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그 혜택은 시청자인 국민 모두와 함께 나눠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래야 새로운 방송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혜택을 독식해 온 지상파 방송사들의 '갑질' 관행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 YTN Innovation begins

이승현 팀장 | YTN PLUS 디지털뉴스팀

1억 2천만 명, 지난 8월 한 달 동안 YTN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이 도달한 사람의 수다. 지난 5월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국내 기성 언론 가운데 압도적인 수치이다. 페이스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인 '도달'은 비공개 지수 이다. YTN은 YTN 페이지의 도달 수치만 알 수 있고 다른 경쟁사의 도달은 알 수 없다. On-Air 방송 시장에서는 시청률이 공개되 기 때문에 나와 경쟁자의 현재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셈이다. 그동안 비공개, 대외비로 다뤄졌던 도달 수치를 밝히는 것은 YTN이 그동안 페이스북과 카카오 채널 등 핵심 모바일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해온 디지털 혁신 작업이 그만큼 괄 목할 만한 수준의 성취를 이뤄내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 ● 보도국과 완벽히 분리된 시스템

YTN의 디지털 부문 시스템은 미국 뉴욕타임스 모델과 비 슷하다. 뉴욕타임스의 디지털 부문을 담당하는 뉴욕 타임스 디지털이 별도 법인으로 분리돼

있 는

것처럼 YTN PLUS는 별도 법인으로 YTN

문의 의사 소통 방식은 기성 언론 사가 가지고 있는 수직 구조보다는

ICT 기업의 수평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가장 응 성공을 이끈 단초였던 셈이다. 큰 이유이다. YTN이 단기간에 성취

한 모바일 대응 전략의 첫 번째 성공 배경이다.

#### ● 홈페이지 관리자에서 Contents Provider로 변신

2015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YTN의 홈페이지와 포털 등 온 라인 부문을 대행하는 것이 YTN PLUS의 핵심 업무였다. 하 지만,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특히 모바일 뉴스 소 비 방식이 혁명에 가까운 속도로 변하는 상황이 YTN의 온라 인 대응 방식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에디팅 업무를 통한 YTN의 홈페이지 대행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향 성을 모색할 것인가를 놓고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이 때 선택된 길은 온라인용 자체 콘텐츠 생산을 늘리는 것 이었다. 보도국에서 생산하는 방송용 제작물이 아닌 온라인. 특히 SNS에 최적화된 제작물을 만들어 공급한다는 것이었 다. 보도국의 제작물들이 온라인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 온라인 대응, 특히 급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연한 결정일 수도 있 변하는 모바일 상황에 좀 더 빠르고 다. Contents Provider로의 전면 전환이 YTN의 모바일 대

#### ● On-Line에서도 역시 Killer Contents가 정답

다시 말해 킬러 콘텐츠다. 아무리 많은 기사를 올려도 반응이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않는다면 페이지 운영은 의 미가 없다. YTN의 모바일 킬러 콘텐츠는 '제보영상'이다. 얼 핏, '제보영상'이라는 타이틀이 촌스럽게 들릴 수 있다. 하지 만. 24시간 생방송으로 실시간 뉴스를 전하는 YTN이라는 브 랜드와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는 역시 제보다. '제보=YTN' 이라는 브랜딩에서 킬러 콘텐츠의 탄생이 시작된 셈이다. 사 안에 따라 다르지만, '제보영상'은 최소 50만 명에서 많게는 700만 명까지 소비한다.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며 YTN 이라는 브랜드를 알리는 데 핵심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 ● 체계화된 제보 CMS 시스템

'제보영상'이 킬러 콘텐츠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꾸준한 제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제보 시스템을 단순화 시켰다. 지나가다 마주친 사건 사고 현장을 '찍어야 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아주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간단하게 만든 것이다. 현재 YTN 제보 CMS에는 YTN 모바일 어플리케이 션을 통해서만 1년에 3만 건에 달하는 제보가 들어온다.

#### ● YTN Innovation은 현재진행형

지금까지 On-Line 부문은 On-Air의 서브 플랫폼으로 여 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엔 뉴스 소비의 중심이 모 바일 플랫폼으로 급격히 옮겨 오면서 On-Line만의 생리와 특성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보도국에서 ON-Line이 아닌 On-Air를 목적으로 만든 제작물들이 On Line에서 먹히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플랫폼의 특성 자 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사이트를 대부분 의 보도국과 편집국 기자들은 인식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게 일반적이다. 나 역시 보도국에서 10년 동안 기 자·앵커 생활을 했지만, 디지털 부문에서 일하기 전까지 디 지털과 모바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을 정도로 무감했다. 하

지만, 텔레비전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시대가 빠르게 지나 가고 있는 만큼 보도국의 디지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On-Air는 On-line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콘텐츠. 전 세계 모든 언론사들이 보도국과 편집국의 디지털화를 고 민하는 이유이다.

> YTN의 콘텐츠가 페이스북에서만 한 달에 1억 2 천만 명에게 전달된다. 시청률로 따지면 석 달 동 안 3배가 오르며 말 그대로 '대박'을 친 셈이다. 하 지만, 보도국을 비롯한 조직 구성원 대다수는 이 같은 성장의 의미를 해석할 줄 모른다. 여전히 On-Line이 아닌 On-Air 의 논리 구조에 함몰돼 있기 때문이다. 보도국의 디지털화에 속도가 붙는 다면 On-Line의 성장 수치는 더욱 더 시너지를 내며 유저들음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 YTN Digital Innovation이 이룩한 성취가 이제 막 막을 올 린,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프로젝트인 이유이다.





YTN

**NEWS** 

조성호 기자 | 보도국 사회부

대학 수학능력시험. 매년 11월 치러지는 한국 사회의 통과 의례다. 매년 수 험생 수십만 명의 운명이 이 시험으로 갈린다. 그런 수능 문제가 미리 유출됐 다면? YTN의 '수능 모의평가 유출. 강사 · 현직 교사 돈 거래 의혹' 보도에는 이 런 문제의식이 있었다.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 때문에 시작 된 취재였다.

취재에 나선 계기는 한 장의 문서. 2013년 발행된 세금계산서였다. 학원 강 사와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6천만 원을 주고받았다는 증거였다. 낮 익은 이름이었다. 올해 6월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 국어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스타 강사'였기 때문이다.

강사가 모의평가 문제를 미리 알고 그 내용을 박탈감을 느낄까? 기를 쓰고 취재한 이유이기도 했다. 수강생들에게 강의했다는 의혹이었다 문제가 유출됐다면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만 커지 던 상황. 게다가 돈을 받은 교사도 수능 출제에 참여할 수 있 3차례나 출제 정보를 알아내려는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 경찰의 수사선상에도 오른 인물이었다. 다른 교사들과 강사 는 취재팀이나, 경찰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 모든 과정이 생 를 연결해 주는 '브로커' 노릇을 하고 최소 5년 전부터 수억 워의 돈이 오가 정황도 확인됐다

수능 모의평가 문제 유출 대가로 돈이 오갔다는 '단독' 보도 다. 그렇다면 보도 가치는 분명했다. 자, 이제 거침없이 지를 일만 남았다. 6월 17일 새벽 5시, 그렇게 첫 보도가 나갔다. 자연스럽게 후속 보도도 이어졌다. 강사가 매년 설과 추석 때 이 공정하게 경쟁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 '브로커' 교사를 통해 수능 출제진이 될 수 있는 교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왔다는 내용이 6월 21일 보도됐다.

두 번째 보도를 앞두고 한 통화에서는 경찰 수사를 지켜봐 달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구치소 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됐기 때문이다. 우리 보도가 수사의 촉매 역할을 한 셈이다. 많은 언론이 우 리 기사를 그대로 받아썼다. 물론 기분 좋았다.

그런데 취재 과정 내내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두려웠냐고? 천만의 말씀, '족집게 강사'와 수능 출제에 관여했던 교사의 지속적인 돈 거래가 있었다면 다른 모의평가, 더 나아가 같은 출제진이 문제를 내는 본선 시험에도 '구멍'이 있지 않았을까

이후 경찰 수사에서 강사가 '브로커' 교사를 통해서 과거에 각대로 완벽하게 이뤄진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못해 두고두고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금전 거래에 맥없이 뚫린 출제 보안에 대한 교육당국의 보 완책도 나왔다. 출제 정보를 유출하면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 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다. 보도 이후 한 달. 결국 수험생들

자화자찬은 이 정도로 줄이겠다. 단독 보도에는 항상 조력 문제의 강사와는 두 차례 통화했다. 첫 번째 보도를 위해 자들이 많다.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불철 취재할 당시 본인이 아니라며 전화를 급하게 끊었던 강사는 주야 뛰는 사회부 사건팀의 나머지 누군가는 데일리를 막아 주기에 가능한 일이다. 묵묵히 취재에 매진하도록 도와준 이 만수 캡틴과 강진원 바이스. 동기와 후배 기자들에게 수상의 공을 돌리고 싶다.

> YTN 사건팀은 '5분 대기조'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현 장에서 중계 스탠바이를 하고 있을 것이며, 부조리를 고발하 기 위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을 것이다. 24시간 뉴스를 이끌어가는 힘은 바로 이런 기동력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도 어깨에 '뽕' 잔뜩 넣고 현장 출동!!!



YTN **NEWS** 

수술실에선 파티를, 원장실에선 탈세를…

김평정 기자 | 보도국 편집3부

캡이 불러 나간 점심자리, 뭔지 모를 문서파일을 한 뭉텅이 받았다. 원래 김대근 기자가 알아보던 사건이라는데… 바로 수술실 파티, 그 병원의 탈세 증거자료들이었다.

수술실 파티 사진으로 떠들썩했던 바로 그 병원, 수술대에 환자를 눕혀놓은 채 생일파티를 하고 수술실에서 햄버거 먹는 사진을 올렸던 그 곳이었다. 말도 안 되는 사진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그 병원에서 이번엔 도덕적으 로만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더 큰 책임을 져야할 탈세라니.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를 제대로 안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는 것이었다. 추가 증거. 설득에 설득을 거듭했다.

#### 어렵게 불러낸 그 제보자

고맙게도 캡은 '정 안 되면 조금 두고 보자'며 배려해 주셨 국 구속됐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의 결과였겠지만, '아무렇게 다. (아마 '얘 좀 아직 정신없구나'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문 자로만 연락을 주고받다가 어렵게. 어렵게 직접 만나기로 했 다. 그를 제보자로 만든 이유는 배신감이었다. 최근 떠들썩했 던 김형준 부장검사의 사장 친구와 비슷했다. 배신감이 폭로 도 '돈이 전부인 자'를 부러워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내 할 일 의 결심을 이끌어 냈던 것이다.

하지만 웬걸, 한편 순진한 듯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능글맞은 그로부터 좋은 기사를 위한 정보를 끌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이, 이대건 · 강진원 선배께 깊이 감사드린다. 않았다. 힘이 부쳤다. 말솜씨(?)에 휩쓸려 정작 꼭 확인해야 할 정보를 놓치기도 했다. 왠지 끌려간다는 느낌이 들 때 나를 믿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다는 태도로 바꿨다. 다행히 이후 잘 풀려가게 됐지만 상대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아 직도 어려운 것 같다.

맡긴 했지만 일은 조금 버거웠다. 안 그래도 부 였다. 멀끔하게 잘 생긴 원장은 잘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 족한 감이 바닥으로 떨어진데다가 장부 속 어려 다. 증거를 들이대도, 경찰이 이미 압수수색했다는 사실까지 우 단어들. 중국인 브로커가 얼마를 먹고 어떻게 개입했는지 확인하고 갔는데도 아니라고 잡아뗐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였 등 이해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았다. 게다가 뭔가 빨리 보이 다. 차라리 억울하다고 항변을 했었더라면 더 인간적으로 느 고 싶다는 조급함도 스트레스를 받게 했다. 여기에 갑자기 제 여졌음텐데. 아쉽기도 하고 분통이 터지기도 했다. 결국 리포 보자마저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 경찰이 언론에 흘리면 수사 트는 경찰의 수사 상황을 덧붙여 낼 수 있었다. 취재하면서 의 료법 위반 등 몇 가지 혐의(기사거리)를 더 포착하기도 했지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라 답답했다. 속으로는 가슴을 치면서 만, 일부 증언 뿐,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기사화시키지 못 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경찰 수사는 약 일곱 달 만에 끝났다. 밝혀진 탈세액은 105 억 원 수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던 멀끔하게 생긴 원장은 결 든 많이만 벌면 그만'이라는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함을 보면서 좌절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공감되는 사회를 위해. 그래서 누구 은 더 좋은 뉴스를 만드는 것이라고 마음을 다잡기로 했다.

끝으로 취재하며 함께 고생한 후배들. 아이템을 넘겨준 대근

#### 두 달여 만에 보도했지만…

무려 3년 동안 탈세한 증거인 내부 자료를 확보한 뒤. 리포트를 위해 병원을 찾아갔다. 반론을 듣기 위해서



## 사람 냄새 풍기는 기자를 꿈꾸며!

안녕하십니까, YTN 18기 수습 변영건, 이경국, 심관흠, 안 형석입니다. 저희 입사 날짜가 7월 18일이니 이제 두 달이 다 되어갑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YTN에 대해 많이 알아 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두 달여 동안 'YTN은 항상 시청자와 함께 있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선배들께서 24시간 내내 누구보 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을 저희 는 직접 보았습니다. 특히 뉴스 한 꼭지 제작에도 기자. PD. AD, 작가, 엔지니어등 수많은 인력의 노력과 땀이 들어간다 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시청자에게 좋은 뉴스를 전하기 가 아니겠는가 하고 저희끼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위해 YTN 전체가 오늘도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 부서에서 수습교육을 받으면서 저희끼리 느낀 점을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기술 동기 안형석은 직접 험난한 산꼭대기에 위치한 송신소. 중계소를 오르던 날을 가

> 장 기억에 남는 날로 꼽았습니다. 등산복, 등 산화가 있어야겠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 니다. 저희 촬영 동기 심관흠은 ENG카메 라를 처음 들었을 때의 무게를 잊지 못 한다고 합니다. 저와 취재 동기 이경 국은 처음 취재 현장을 나가 '뻗치 기' 하던 날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장에 계신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도 제 역할을 온전히 다 할 수 있는 YTN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동시 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버겁게만 생각하지 않으려 합 니다. 대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한걸음씩 나아가려 합니다.

최근 이경국이 취재차 한 장례식장을 다녀온 이야기를 해 주 었습니다.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는 현장에 열 명이 넘는 기 자가 다짜고짜 들어와 아이의 죽음에 대해 캐묻고 떠나 힘들 었다고 했습니다. 슬픈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겪는 고통에 먼저 공감하는 것. 그것이 언론인이 가져야 할 태도이자 도리

안형석, 심관흠, 이경국, 변영건 저희 넷은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언론인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가 전하는 영상 한 컷. 뉴스 한 꼭지의 무게를 견뎌내겠습니다. "YTN이다!"며 외치 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YTN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람들이 전하는 사연과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 감하겠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놓는, 같이 웃고 같이 우는 사 람다운 언론인이 되겠습니다.

변영건 18기 수습기자 | 보도국 사회부



## YTN 인으로 빛나기

김영수 경력기자 | 보도국 사회부

지난 7월 5일, 고작 입사 이틀째이던 날, 비가 많이 내려 다 음날 새벽 중계를 지시받고 3층 사회부에서 비옷을 챙겨 나 가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빗발쳤고 야근 선배들 은 바빠졌습니다. 울산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퇴근하 기는 힘들겠다.'는 푸념도 잠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선배들 의 속보와 전화 연결은 말 그대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더 놀 랐던 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제보 전화였습니다. 미처 전화를 다 받지 못할 정도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차례 제보 폭풍 이 휩쓸고 지나가 뒤 퇴근하는 길에 문득 'YTN에 왔구나 '라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YTN에 오긴 왔지만, YTN 뉴스는 시청자 입장에서 보는 것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펜을 손 에서 놓음 수 없었고 그렇게 해도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빠 르고 정확한 보도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입니다. 새벽같이 경찰에게 전화하고. 휴일도 없이 괴롭히다 보니 저절로 그 말 이 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잦습니 다. 그런데 "YTN 기자는 정말 집요하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 는 선배의 조언을 듣게 됐습니다. 그날부터는 귀찮은 기자가

아니라 집요한 기자가 돼야겠다고 다 짐했습니다.

다른 교훈을 줬습니다.

YTN의 파급력은 또 것입니다.

좋은 제보를 취재해 YTN의 영향력을 직접 느꼈습니다. 인 터넷과 페이스북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파급력이 크면 마냥 좋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첫 경험은 정반대였습니다. 좋 은 글보다는 안 좋은 글이 더 잘 보였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 른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섬세하게 기사를 쓰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어떤 역중에도 흔들리지 않 을 정도의 집요한 취재로 바탕을 다지고 오차 없는 기사를 써 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벌써 두 달이 흘렀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수년 간 몸에 밴 습 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지만, 버팀목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 다. 하찮은 고민까지 진지하게 들어주는 이준영을 비롯해 능 구렁이 같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권남기와 시크한 매력을 가진 이연아, 엉뚱 · 유쾌 · 발랄 세 단어가 모두 어울리는 신지원. 전 회사부터 이어진 질긴 인연의 차정윤까지…. 우리는 입사 동기입니다. "힘들어 죽겠다"라는 한탄을 들어줄 사람들입니 다. 우리의 목에 있는 YTN 명찰이 아직 무

겁다는 걸 서로가 잘 알기 때문에 가끔 은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

- "파주에 타조 놋장은 가봤어요?"
- "이태원은 내 구역이죠!. 거기 엄청 맛있는 집 알아요"
- "갓화도에 인삼 막걸리 최고 맛있어"

전현지 작가 | 구석구석 코리아

2016년 7월, 상암동 YTN 본사 사옥 5층 웨더라이프국에 파라과이 출신 미녀 방송인 아비가일이 떴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안 내할 그녀의 첫 여정은 이미 그곳에서 시작된 셈이다. 이미 타 방송사에서 수많은 여행 프로그램의 MC로 활약해왔던 아비가일 은 기획 단계부터 여행지 선정, 맛 집 조사까지 제작진과 함께하며 여행을 준비했다. 한국생활 11년차 방송인답게 넘치는 정보력 을 자랑하던 그녀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자기만의 비밀 명소들을 속속들이 꺼내놨다. 그렇게 제작진과 MC가 의기투합해 전에 없 던 신개념 여행 프로그램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남들 다 하는 뻔한 여행 말고 세상에 없던 여행을 만들어보 자, 누구나 다 아는 명소 말고 사람 냄새 나는 뒷골목을 담아 보자, 좋은 경치를 감상만 할 게 아니라 그 속으로 뛰어들어 날 것 그대로의 체험을 담아보자. 그렇게 야심찬 기획을 담아 〈구석구석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의 이름이 정해졌다.

#### 구석구석 키워드 1 - 넘치는 웃음!

- 전어 개인기부터 곤장 치기까지 폭소만발 여행 가이드

첫 촬영이 진행된 남산서울타워에서 기념 생수를 원샷할 때 부터 제작진은 아비가일의 끼를 알아봤다. 그녀는 인천 소래 포구 어시장에선 전어를 흉내 내는 개인기로 어시장을 초토 화시키더니 단양 온달관광지에선 더운 날 고생시킨다며 피디 에게 달려들어 곤장을 치는 모습으로 주변 관광객들을 배꼽 잡게 만들었다. YTN 로고가 선명히 새겨진 깃발 하나면 어 디든 갈 수 있는 아비가일, 이미 3회 차까지 진행된 촬영에서 폭소만발 여행 가이드로 수많은 시민들에게 눈도장을 제대로



#### 제작진들은 그저

그런 그녀를 따를 따라다니며 어디로 튈지 모를 그녀의 유쾌한 여행을 잘 담아내기만 하면 될 뿐, 몸을 사리지 않 는 여행 가이드 아비가일이 〈구석구석 코리아〉의 여행을 두 배로 즐겁게 만들어 주고 있다.

#### 구석구석 키워드 2 - 풋섯한 여햇!

#### - 체험부터 먹방까지 저스트 텐미닛~♪

사실 처음 프로그램을 기획할 땐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여행지 정보며 숨 은 명소. 그곳에서 의 체험, 맛집 탐방 까지 다 담아낼 수 있을까 걱정이 많 았다. 하지만 무언 가를 뺄 것을 걱정 하기보다는 무언가

민하는 쪽을 택했다. 빠른 편집과 톡톡 튀는 자막으로 속도감 을 더하고 전문가나 현지 해설사의 인터뷰를 함께 넣어 정보 를 주려거든 제대로 주자라고 마음 먹었다. 여행 프로그램의 또 하나의 묘미인 대리만족을 위해 오늘도 아비가일과 제작 진은 발품을 팔며 하루 수십 곳의 여행지를 검색하고 새벽부 터 다음날 새벽까지 무박으로 이어지는 촬영 강행군을 이어가 고 있다.

#### 구석구석 키워드 3 - 사람 이야기!

#### - 따뜻한 인심과 추억의 풍경들, 힐링 로드

여행을 떠났을 때 계획대로 딱딱 여행이 이뤄지는 것도 좋지 만, 그보다는 현지에서 겪게 되는 돌발 상황이나 뜻밖의 만남들 이 더 추억에 오래 남기 마련이다. 〈구석구석 코리아〉에서는 떠 들썩한 관광지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통 시장이나 추억의 거리 등 사람 냄새나고 옛 정이 살아있는 잃어버린 풍경, 소박한 골목 으로도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난다. 그곳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 속에서 사람들의 삶을 담는 다. 진정한 여행이란 신기한 볼거리를 구경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과 삶 속에서 그 무언가를 배워가는 여정이기 때문이다

> 지난 9월 2일 첫 방송된 〈구석구석 코리아〉는 이제 막 그 첫 발을 떼었다

수많은 시청자 들에게 여행지 를 소개하는 여 행 가이드라니 부담이 이만저만 이 아니다. 하지 만 시행착오조차



도 여행지에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건 늘 설레는 일이니까.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한민국의 숨은 매력을 알리 기 위해 우리는 어떤 험난한 여정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에서건 YTN 〈구석구석 코리아〉의 깃발을 달 고 신나게 여행 중인 아비가일을 마주친다면 반갑게 인사 하며 응원해주길.

#### 를 더하기 위해 고 〈구석구석 코리아〉의 여행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와~ 진짜 놀랍네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관련된 궁금증과 고민을 듣고, 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가가 직접 찾아가 문제점을 파악하 고, 실험을 통해 과학적인 솔루션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 습관이 실내공기 오염의 결정적 원인이 큰 도로 바로 옆에 살며 자동차들이 내뿜는 매연 걱정에 환 기도 제대로 못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청소를 하는 한 주부의

집. 청소기와 물티슈. 먼지떨이를 손에서 놓지 않는 주부지 짜배기 정보가 공개된다. 만, 어쩐 일인지 아이들은 눈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산다. 아침저녁으로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에 이불 빨래에 정말 열심히 청소하지만, 이 집 공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 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버스와 트럭이 쌩쌩 달리는 집 밖 공 기와 매일 쓸고 닦는 이 집안 공기 오염 정도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원인은 의외로 청소습관이었다.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게 실내 공기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었다니. 충격적 이고도 불편한 진실이 밝혀지며, 의문과 동시에 호기심이 생 기는 지점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출동한 전문가는 매연 걱정에 창문을 닫 고 청소기를 돌리거나. 화학세제로 화장실을 청소하는 모습. 수시로 아이들의 장난감을 물티슈로 닦는 습관, 공기탈취제 를 뿌리는 것 등이 오히려 실내 공기를 오염시킨다고 지적한 다. 화장실을 청소하는 화학세제가 뜨거운 물과 만나면 유해 물질이 호흡기로 직접 흡입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밝힌다. 이 럴 수가… 뜨거운 물로 청소하면 살균이 더 잘 될 거라며 김 팍팍 나는 뜨거운 물로 락스를 헹궈낸 게 위험한 청소습관이 간다. 었다니! 오늘부터 당장 청소방법을 바꿔야하는 시청자가 많 을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세먼지를 피부에 달라붙게 만드는 자외선 차단제, 온 가족이 타는 차 안 미세 '맑은 공기를 부탁해'에서 확인하자.

먼지의 심각 성, 벽속암 세포라 할 수 있는 곰팡이.

집안에 존재하는 1급 발암물 질 '라돈 가스' 등 불편한 진실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쯤 되면 정 말… '이불 밖은 위험해!'

"범국민 생활 개선 프로젝트! 당신의 맑은 공기를 책임진 다"며 시작한 〈맑은 공기를 부탁해〉는 생활습관을 조금 바꿔 서. 실내공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청소 하는 순서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위에서 아래 순으로 한다거 나. 적당한 화분만으로도 실내공기를 개선하는 방법. 신문지 나 분무기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공기를 정화하는 알

#### 생활습관 개선으로 맑은 공기 만드는 방법 제안

세계경제협력기구(OECD)는 2060년 우리나라 인구 100만 명당 1,000명이 미세먼지 때문에 조기 사망할 수 있다고 분 석했다. 또 한 연구에 따르면, 공기 오염은 폐와 심장은 물론 뇌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고 한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뿐 아니라 피부에도 독이 되며 안구질환, 부정맥, 뇌졸중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비단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포름알데히드. 벤젠. 라돈 등의 유해물질도 안심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때 〈맑은 공기를 부탁해〉는 시청자와 소통하며 실내공 기 문제를 풀어간다. 기상캐스터 출신 방송인 박은지와 '귀요 미' 개그맨 이호찬이 MC를 맡고, 공기 전문가와 현직 기상캐 스터가 패널로 나와 전문 정보를 알려준다. 건강한 숨 쉬기. 맑은 공기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좋은 제안이 시청자를 찾아

자, 정말 고등어가 집안 미세먼 지의 주범일까? 답은 매주 화요 맑 일 오후 6시 공기질 개선 프로젝트





공기질 개선 프로젝트, 〈맑은 공기를 부탁해〉의 제작 현장이다.

"알기 싫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꼭 알아야 합니다."

실내공기는 '공.부.해'가 책임진다!

아파트 거실 같은 밝은 분위기의 스튜디오에서 심각한 대화가 요간다. 〈사건24시〉 녹화현장이 아니다.

YTN사이언스가 날씨 · 공기 종합 서비스 기업 케이웨더와 손잡고 지난 8월 초 첫 방송을 시작한

장소영 작가 | 맑은 공기를 부탁해

주 화요일 18시 / 재방 : 수 10시 30분 / 금 17시 30분 / 토 23시 / 일 08시 전제관 • 조연출 \_ 김수지, 노다연 • 작가 고민정, 최민지, 황지혜

## 서울의 🍱 🔫 워싱턴의 💢 🔫

투파원 귀국 리포트 | 서울의 미국, 워싱턴의 미국

YTN

NEWS

워싱턴 특파원 생활 3년을 회고하며

**왕선택** 정치선임데스크 | 보도국

지난 6월 말, 3년간의 워싱턴 특파원 근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워싱턴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나 미국 국내 정치 보도를 담당하면서 여러모로 배운 바도 적지 않았지만, 아쉬움 을 느낀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런 느낌을 공유하는 것이 어쩌 면 언론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펼쳐본다.

기 고민했던 문제 가운데 하나는 한국 언론이 미 국의 한반도 전문가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하다 국의 한반도 전문가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한다 는 우려감이었다. 미국 전문가의 견해와 논평이 중요한 보도 대상이라는 점에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그들에게도 한계는 있다. 이들은 미국의 국가 이익, 즉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확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기준으로 상 황을 이해한다. 미국 전문가에게 북한은 불량국가인 것이고. 남과 북이 통일을 추구하는 국가라는 특성은 고려하지 못한 다. 그러므로 미국 전문가 논평이 우리나라가 채택해야 하는 최선의 방책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우리 언론에 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논평을 보도의 신뢰와 권위를 높여 주는 장치로 사용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남북 관계 개선도 항상 고민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국 전문가 의 견해를 중심에 놓고, 미국 전문가 논평을 보조적으로 참고 하는 균형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미국의 생각이 하나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미 두서없이 이런 저런 제안을 말했지만, 나 자신이 서울 생활 국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라다. 같은 사안에 대해 행정부와 에 익숙해지고, 결국 미국 반응에 매달리는 관행에 빠져들지 입법부, 사법부별로 다른 인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행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든다. 다만 우리 언론이 스스로 균형감을 정부 내에서도 국무부와 국방부, 재무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 갖고 보도 수준을 높여가는 노력을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 는 경우가 많고, 정치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대부분의 논 다. 특히 일부 선진국, 그 중에서도 미국은 뭐든지 모범 답안 란에 대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을 제시할 것이라는 생각이 더 이상 현실성을 갖지 못한다는 의 생각을 굳이 일률적으로 파악해서 보도하는 것이 적 절한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른 바 '미국의 생각'을 소개하는 보도를 하면서 미국 내 의 사 결정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있고. '미국의 생각'으로 격상하기까지 어떤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는 설명 도 기사 내용에 포함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 을 해본다. 맥 빠진 기사를 쓴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유용한

담론 형성에 차분하게 기여하는 언론

문화를 발전시키는 방법이 될 것으

로 믿는다.

회사와, 특파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도움을 준 회사 동료, 그리고 지난 3년 간 필자의 워싱 턴 생활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 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마지막으로 중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미국 등 선진국 사례 를 참고하는 보도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 다. 재난 대응에서 허점이 발견될 경우 외국 사례를 비교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엄습했을 당시, 미국 당국의 대 응이 필설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던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외에도 미국에서는 총기 사건이나 흑백 갈등, 경찰의 공권력 과잉 문제 등의 안타까운 사건과 재난 사고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대응도 실망스럽다. 미국이 선진국이라 고 해서 각종 재난 대응에서도 선진적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고 간주하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인식이다. 이제는 한 국도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 문제만 생기면 미국이든 어디든 다른 선진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강 박증에서 벗어날 때도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토론은 우리 언론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화두 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에서 보는 미 국'과 '워싱턴에서 보는 미국'을 구분할 수 있게 된 점에 대 해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기회를 빌어 워싱턴 특파원 기회를 부여해준

## 지국에서 본부로… YTN 경남취재본부

**박종혁** 지국장 | 보도국 전국부 경남취재본부

경남은 옛 마산과 진해 그리고 창원이 합쳐 100만 인구의 창원 등 18 개 시와 군이 있는 인구 320만 명의 광역 자치단체이다.

320만 명이 먹고 사는 근간은 바로 기계와 조선산업이다. 창원은 KTX 를 만든는 현대 로템과 해수를 담수로 바꾸기에 열을 올리는 두산중공업 그리고 전차 등 각종 무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가 모여 있다. 잘 알려져 있듯 거제는 우리 조선 산업 빅3 가운데 2곳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을 중심으로 대형과 중형 조선소 등이 밀집해 있다. 경남의 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를 받치는 중요한 축이기도 하다.

다. 기계산업의 메카인 창원국가산단은 노후화로 구조 고도 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조선업의 메카 거제도 조선소들 의 부실 경영이 알려지면서 뿌리가 흔들거리고 있다.

으로 형성되고 있는 항공산업단지이다. 경남이 앞으로 50년 동안 먹고 살 방도라며 내놓은 발전 전략은 크게 5가지다. 경 남 진주와 사천의 항공 산업단지, 밀양 중심의 나노융합 산업 단지, 거제의 해양 플랜트 산업단지, 산청 중심 서부경남권 한방 항노화 산업단지 등이 그것이다. 아직까지는 항공산업 을 제외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여하튼 경남은 그런 변화 의 시대를 맞았고. YTN 창원지국 역시 최근 큰 도전의 시대 를 맞았다. 바로 YTN의 12번째 지국인 '진주지국'의 개소이

진주지국은 경남 거창, 합천, 함양, 산청, 하동, 진주, 사 천, 남해, 고성, 통영을 담당한다. 혁신도시 형성과 항공산업 의 성장으로 경남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이른바 '서부 경남 권'의 소식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세운 YTN이라는 나무의 한 가지이다. 지국 가운데 유일하게 취재기자 1명, 촬영기자 1명의 한 팀으로 운영해온 창원지국에 드디어 광역지자체 2팀 이상 배치가 실 현된 것이다.

그렇다면 경남을 책임지고 있는 YTN 식구들은 누구일까? 경남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YTN 경남취재본부라는 이름 을 달고, 창원지국과 진주지국의 진용을 갖췄다.

환경이 변하듯 경제 환경도 변한다. 마찬가지 창원지국은 이철근, 박종혁, 장근렬, 박승환이 근무하고 있 다. 또 진주지국은 오태인, 박재상, 조재영이 구성원이다.

이철근 부장은 촬영기자이면서 동시에 창원지국 최고참 선 배로 지국의 살림을 맡고 있고. 타사 동료 사이에서는 성실하 기로 정평이 나 있는 선배이다. 장근렬 사우는 운전을 담당하 이를 대신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사천을 중심 는데. 유창한 영어실력을 갖춘 인재로 경남 구석구석을 누비 며 팀의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오디오맨 을 맡고 있는 박승환 사우는 작곡, 작사가의 꿈을 꾸고 있는 순수 영혼의 소유자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에 충실할 줄 아는 친구이다. 그리고 필자인 박종혁은 경남 지역의 리포트 생산과 마케팅 활동을 책임지고 있다.

> 진주지국으로 넘어가면 지역 신문사와 연합뉴스를 거쳐 방 송기자의 꿈을 안고 입사한 오태인 기자가 있다. 항간에 떠 도는 소문으로는 필자와 많이 닮았단다. 본인으로서는 달갑 지 않겠지만 그래도 영광(?)으로 생각하며 서부 경남에 YTN 의 악명(?)을 떨치는 기자가 되겠다는 포부가 대단하다. 기사 의 절반을 차지하는 영상 취재는 연합TV뉴스와 채널A를 거 쳐 입사한 박재상 기자가 담당한다. 촬영기자의 오디오맨부 터 시작해 꿈을 실현하고야만 입지전적인 인물로, 지국에서 는 이른바 비주얼 담당이다. 마지막으로 운전과 오디오맨 두 역할을 담당하는 전천후 지국원으로 조재영이 있다. 영원한 해병으로 갓 입사했지만 방송계에 관심이 많아 앞으로 열정 과 노력이 기대되는 친구이다.

이렇게 경남은 7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역사적인 진주지국 개소로 YTN 보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정말. 과학이 쉬워질 수 있을까요?

이동은 | 사이언스TV국 과학뉴스팀

"이게 뭔 말이냐~?"

오승엽 팀장님의 한 마디로 데스킹은 시작됩니다. 고분자, 신경세포. 나노 입자…. 피하고 싶은 용어들이 난무하는 가운 데 이른바 '초등 6학년생도 이해하는' 기사를 쓰기 위한 사투 가 벌어집니다.

네. 정말 사투에 가깝습니다. 과학이니까요. 보는 사람은 물론이고, 하는 저희도 과학은 어렵습니다. 특히 저같이 뼛속 까지 문과인 사람이 과학 기사를 쓰다 보면 스스로 무식함을 탓하며 머리를 쥐어뜯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 학뉴스팀은 남들만큼 티는 안 나도 남들보다 조금은 더 고민 상 흥미 위주의 과학만 다루기가 어렵다는 것도 저희 나름의 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에는 오승엽 부장님을 필두로 모두 5명의 과학 기자 가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 양훼영 기자, 허찬 기자, 이혜리 기자 그리고 저. 이렇게 5명의 기자가 영상을 책임지는 3명 의 촬영 VJ와 함께 과학뉴스를 취재합니다. 여기에 한 팀이 더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4시에 생방송 '사이언스 투데이'를 진행하는 팀입니다. 얼마 전 입사한 이나리 PD를 비롯해 2명의 AD와 1명의 작가, 그리고 4명의 앵커가 매일 바쁘게 뉴스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과학뉴스팀의 업무가 모두 '사이언스 투데이'에 집 또 파보겠습니다. 중돼 있었습니다. 주말용 또는 당일용 리포트를 가끔 넘기는

정도로만 YTN 뉴스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결과물을 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 과학뉴스팀의 리포트 많이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과학이 어떤 경우는 너무 넓고 어떤 경우는 지나치게 좁습니다. 기초과학부터 수학, 교육, 건강, 해외 연구 성과 까지 그러다 보니 다른 부서의 취재 부야름 넘나들기도 하 고 모두가 꺼려하는 재미없는 과학을 전하기도 합니다. 물론 쉽고 재미있는 과학, 생활 밀착형 아이템이 관심을 끄는 것 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이언스TV에 애정을 가 진 연구기관과 과학자들. 나름의 과학 마니아들이 있기에 항 고충이라면 고충입니다. 팀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매일 리포 트를 올릴 때마다 편집부 선배님들께서 "아직도 어렵다". "모 르는 단어가 많다" 전화를 주시고는 한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한 번 "아차!"하고 다시 처음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앞으 로도 따끔한 충고와 따뜻한 관심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또 열심히 뛰고 있는 저희 과학뉴스팀이 더 땀나게 일 할 수 있 도록 많이 활용해주시고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이 언제쯤 쉽고 재미있어질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 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나름의 전문분야라는 자부 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과학의 밑바닥까지 파고



#### \_\_\_\_\_\_ 이 달의 자랑스러운 YTN인 상 🎏 \_\_\_\_

#### 7월

#### 특종상

은상 〈수능 모의평가 유출, 강사·현직 교사 돈 거래 의혹〉 보도



조성호 사회부



류석규 영상취재1부



동상 \_ 〈국정원의 PC방 간첩 혐의자 체포 현장〉 취재

양시창 사회부

#### 공로상

동상 \_ 〈하계 올림픽 선수촌 YTN WORLD 방송〉 계약 성사



김 익 현 글로벌기획팀



**안 미 현** 글로벌기획팀

#### 8월

#### 특종상

은상 ('수술실 파티' 성형외과 수백억 탈세) 단독 및 연속 보도



김평정 편집3부



최민기 경제부



최성훈 영상취재1부





지 환 전국부 춘천지국 진 민호 \_ 전국부 춘천지국

동상 \_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추돌 사고〉 관련 보도

#### • 선정 이유

- 7월 특종상 은상은 수십만 명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시험에서 검은 뒷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결정적 자료를 확보해 출제관리의 허점을 밝혀내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 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됐습니다. 동상은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간첩 혐의자 체포 장면을 확보해 방송 사상 처음으로 내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부여됐습니다.
- 그 결과 또한 우리 보도를 확인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특종상 동상은 1보 단독 영상에 이어 사고원인을 둘러싼 결정적 증거를 제 시한 2보 단독 영상, 가장 빠른 현장 중계를 시작으로 며칠간 이어진 보도에서 타사의 보도를 압도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평가됐습니다.



## '달항아리'에 담긴 삶의 연, 그 길을 그리다

홍경한 | 미술평론가

곱다. 색도 곱고 색을 만드는 빛도 곱다. 여백은 온유하고, 형상은 단아하다. 볼록한 것이 그 무엇이든 한없이 포용할 듯하다. 헌데 제목은 카르마 (Karma)다. 즉, 그의 작업엔 우리말의 '연(緣)', 또는 불교의 '업(業)'이 중요한 의미로 내재되어 있는 셈이다. 왜일까. 어째서 넉넉함과 무던함의 '달항아리'에 미래에 선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자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선악의 소행이 걸쳐졌을까.

사 작가 최영욱의 작품에서 '카르마'는 '업'보다는 '연'에 따르면 이는 "만났다가 헤어지고 어딘가에서 다시 만나는 길"을 의 가깝다. 그리고 그 연 가운데서도 '인연'에 방점이 있 미한다. 앞서도 거론했듯 균열된 선들 하나하나가 삶의 이야기이고 다. 다시 말해. 있는 듯 없는 듯 어딘가 어수룩해 보이면서도 후덕한 형상이 품고 있는 것은 순환하는 인생, 우리네 삶의 무수한 교차성 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항아리는 항아리인데 마치 은은한 달을 닮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인 '달항이리', 그 순백의 '달항이리'를 그려 온 작가는 오래 전부터 삶의 문제를 찾고 그것에서 스스로 해답을 유추하며, 인간의 생이 지닌 참된 가치란 무엇인지를 물어 왔다. 투 박하면서도 소박한 전체적 여운과는 또 다른 삶의 결을 '선(線)'으로 나타내며 인(人)의 연(緣)을 담아 왔다.

삶의 '선(線)' 혹은 생의 '도(道)'로 대리되는 항이리 표면의 잔금들 은 흡사 도자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유약의 빙렬(크랙)과 닮아 있다. 그것은 작가의 손에 의해 일일이 만들어진 선(線)이며, 작가의 말에 인연의 기호라는 것이다.

그 균열의 선들은 정해진 운명 속에서 마주하는 삶의 희로애락과 갈음된다. 어쩌면 '달항이리'처럼 둥글게. 모나지 않게 평범하고 살 아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마주하는 슬픔과 기쁨, 절망과 환희, 좌 절과 희망이라는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보편적 인 간사가 투영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최영욱의 그림은 외(外)와 내(内)가 다르다. 그는 형이상의 철학적 논거를 '상(像)'이라는 물질적 방식으로 서술하며, 심상으로 받아들인 인간 근원의 풍경을 기술하지만 가시적인 결과는 온화한 느낌을 심어준다. 최영욱의 '달항아리'는 그렇다. 그런데 문득 이 '달

#### 최영욱 \_ Choi, Young Wook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개인전 \_ 카르마〈갤러리 비선재, 서울, 한국〉등 29회 •단체전 \_ 담다〈슈페리어 갤러리,서울, 한국〉 The Way to Infinity 〈리츠칼튼 초이스 갤러리,서울, 한국〉 Self Fiction Seoul & Japan 〈한전아트센터,서울, 한국〉 등 국내외 그룹전 다수
- 작품소장 \_ 빌게이츠 재단 〈시애틀, 미국〉 UN GCF 국제기후기금, 인천경제자유구 역청 (인천, 한국) 스페인 왕실 (스페인) 룩셈부르크 왕실 (룩셈부르크) 필라델피아 뮤지엄 〈필라델피아, 미국〉 NUVICO INC. 〈뉴저지, 미국〉 LG U Plus 〈서울, 한국〉 백 운미술관 〈서울, 한국〉 대한항공 〈서울,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경기도 미술관〈안산, 한국〉티맥스 소프트〈분당, 한국〉 코리아헤럴드〈서울, 한국〉 세아제 강 〈서울, 한국〉 MUDO SATISMAGAZALARI A.S. 〈이스탄불, 터키〉 하나은행 〈서울, 한국〉 외 다수 소장

항아리'를 만드는 시간이야말로 작가 개인에겐 삶의 반추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도 그럴 것이 넓게 분포된 여백, 서정의 여운은 인내 와 치밀함의 산물이다. 화려하고 장식적인 겉멋 보다 우선하는 사색 의 기운, 군더더기 없는 단이한 형상, 화면을 부유하는 정적인 기운 역시 지루하고 고독한 세월을 견뎌낸 결과이다. 실제로 그는 어디선 가 "선을 긋는 그 긴 시간들이 나의 연을 생각하는 시간들이었다." 고 말한 바 있다.

많은 이들이 최영욱의 그림을 좋아하는 것은 선 하나도 허투루 대 하지 않는 정밀함을 넘어 모든 잡음을 뚫고 올라오는 작은 파동 탓 이 크다. 그리고 그 파동의 진원이 청아한 형색의 '달항아리'가 아닌, 그 너머 시각적 범주 외계에 놓여있음을 깨닫기 때문일 것이다. 이 는 소재가 매질(medium)이 됨에 분명하고 일종의 '공진현상'을 일으 키는 촉매임에 틀림없지만 정작 음의 발원은 작가에 의해 그려지거 나 새겨질 때 드러나는 그동안 경험한 인생 각론, 공감 기능한 층위 의 공감에 무게가 있음을 가리킨다. 이것이 최영욱의 '달항아리'가 지닌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그런데 그의 그 림은 지나치게 대

중적인 나침반에 의존하는 감이 있다. 언젠가 한 인터뷰에서 "앞으 로 해외 아트페어 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 있듯 그는 시장의 가능성에 방향을 두고 있음을 엿본다. 필자의 시각에선 아쉬운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목적물과 상 징을 달리하는 여백이 빚어낸 여운이나, 인식과 궤를 달리하는 여 감, 조형적 개념 등의 적절한 교합이 내는 파장이 결국 '장사'인 무 대에서 개화한다는 건 여러모로 격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달항아리'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시장에서의 성과와는 분명 다른 결이다. 그렇다고 반드시 선방에나 걸려야 한다 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시장에서의 예술적 공명이란 생명이 짧다. 작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Q. '이주의 신간'을 맡고 있는데, 최근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꺼내 보는 책이죠. 조금 더 잘하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은데 생각처럼 안 될 때가 많 아요. 매일 TV 속 제 모습을 마주하다 보면 "왜 저렇게 밖에 못했 을까?"하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죠. '데미안'을 보면 주인공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갈등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공감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 Q. '이주의 신간' 코너는 VR로 제작하던데 어떤 매력이 있는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손짓, 발짓을 하는데 찍고 나면 책도 튀어 나오고, 다른 공간에서 걷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죠. 아무 래도 앉아서 하는 뉴스를 주로 하다 보니 저렇게 서서 몸을 움직이 고, 동작을 많이 해야 하는 VR 촬영이 재밌고 편안합니다.

Q. 새벽에 방송을 하는데 장점이 있다면?

워낙 밤잠이 많아서 별명도 '박벼'입니다. 해 가 질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해서요. 그래서 힘들기는 하지만 새벽 방송만의 장점이 있다

면 낮 시간을 활용하기에 좋다는 거죠. 대신, 그 밝은 시간을 혼자서 때워

> 야 하기 때문에 혼자 놀기의 달 인이 됐습니다. 요즘 혼술, 혼 밥. 혼창 (혼자 노래 부르기)이 Q. 좌우명이 급시우(及時雨)인 이유는? 유행이던데 이미 다 졸업했습 니다^^

#### Q. 직업군인이 꿈이었는데 어떻 게 앵커가 됐는지?

자주 듣는 질문이네요. 그럴 때면 항상 우스갯소리로 "친 구랑 장충동에서 족발에 소주 먹 다가 하게 됐다"라고 말하죠. 원래 는 직업군인이 되는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과 는 다른 일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고심 끝에 결국 전역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같이 복무하던 동기 (그 동기가 마침 아나운서였습니다)가 군대 있을 때 제가 브리핑도 곧잘

했고, 글 쓰고 말하는 걸 잘했으니 앵커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권 유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Q. 장교로 복무했던 경험이 앵커 활동에 도움이 됐는지?

군에 있을 때 중요 업무 중 하나가 브리핑이었습니다. 고위 인사 가 전방에 방문하면 북한 동향이나 부대 상황을 설명했죠. 앵커 리 포트 하듯이 화면을 짚어가면서 했는데, 각이 안 나온다고 엄청 혼 났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에는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앞에서도 브리 핑을 했었지만 확실히 YTN 생방송 카메라가 더 긴장됩니다. 그래도 그때 훈련받았던 것이 지금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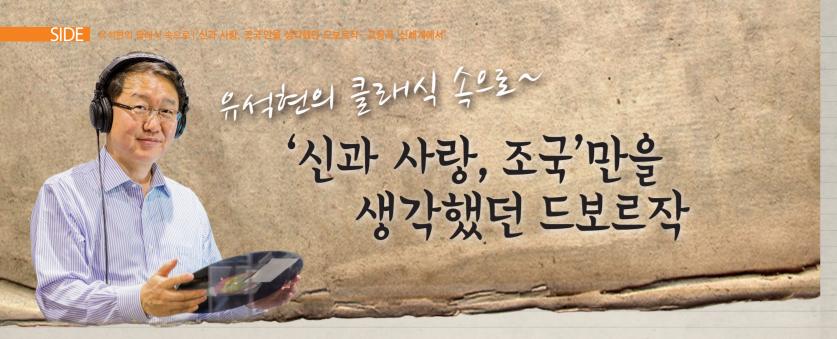
Q,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떤 뉴스가 터질지 몰라 스마트폰 을 손에서 놓지 못할 때가 많은데 자신만의 디지털 디톡스 비법이 있다면?

"열심히 일한 당신, 먹어라!" 저의 스트레스 디톡스 방법은 맛 집을 찾아다니는 것이랍니다. 정말 맛있는 집을 찾아 놓고, 그곳에 갈 기대감에 일주일을 보내는 경우도 있죠. 맛 집에 지인들을 데려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제가 한 음식도 아닌데 맛있다고 좋아하면 거기 에서 오는 만족감도 상당하더군요.

'급시우'는 '간절히 원할 때 내리는 단 비'라는 뜻인데,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단비 같은 사람이 되자, 감사한 마음 보답 하며 살자, 그런 생활신조 때문에 정하게 됐어요.

#### Q. 앵커로서의 바람은?

평소에는 잘 웃는 편인데 뉴스를 할 때는 의식적으로 진지한 표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무섭게 보인다 는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중간을 찾기가 어렵기도 했는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진 것 같네요. 어쨌든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워낙 잘 웃다 보니 이왕이면 웃으면서 전 할 수 있는 뉴스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 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석현** 앵커 | 국민신문고

4년 전 이맘때에도 미국은 대선 열기로 후끈했다. 결과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롬니 후보를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했지만… 그가 연임에 도전하며 출사표를 던졌던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의 취재 에피소드. 전당대회는 2012년 9월 3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인구가가장 많다는 샬럿에서 시작됐는데 문제는 대회 기간 중 호텔 숙박비가 4~5배 올라 회사 출장비로는 어림도 없었던 것. 해결방안을 고민하던 중 프레스센터에서 YTN과는 같은 총 복도 건너편 방을 사용하던 연합뉴스 후배들이 참신한(?) 제안을 해왔다.

이동 수단으로 대형 밴을 렌트하고 샬럿시 외곽에 2층짜리 싱글하우스를 통째로 빌려 같이 사용하며 비용은 인원수 대로 분담하자는 것이었는데 연합뉴스 인원 6명에 YTN 2명(나와 카메라기자)을 더해 8명으로 비용을 나누면 각자의 회사 출장비와 거의 맞아떨어졌던 것.

전당대회 전날 이른 새벽 D.C.를 출발해 400마일(640km)을 쉬지 않고 달려 살럿 외곽 2층 집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대회가 열리는 '타임워너 케이블 경기장'으로 직행, 땀 뻘뻘 흘리면서 스탠드 업과 인터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예고 리포트를 제작해 서울로 전송… 고맙게도 후배들은 나를 위해 2층에서 제일 넓고 침대도 훌륭한 방을 쓰도록 배려해 줬는데 침대 머리맡에 놓인 액자 속 사진을 보고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진에는 키 크고 건장한 흑인 남성과 작고 통통한 백인 남성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던 것. 말로만 듣던 '게이' 커플이 집 주인임을 알게 된 난 방을 교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하나같이 거부당하고 침대 커버 위에서 눈을 붙이는 둥 마는 둥 이틀 밤을 보내야 했다.

워싱턴에서의 3년은 미 대선 외에도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시작으로 3차 핵실험, 한미 FTA 체결,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연례 국방 장관 회담, 막판에 윤창중 성추행 사건까지 사건 사고 취재로 후다 닥 지나갔다. 그런 와중에 유일한 낙이라면 주말에 내가 좋아하는 LP 레코드를 찾아 헤매는(?) 일이었다.

인터넷으로 'Yard 세일'이나 'Garage 세일', 'Moving 세일', 'Estate 세일' 집을 찾아 품목을 살펴보면 LP 또는 Vinyl, Record라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 특히 노부부가 살다가 양로원에 들어가거나 사망하는 경우 집안의 물건을 몽땅 처리하는 'Estate 세일'은 주목해야 할 대상. 집주인이 클래식 애호

가인 경우 평생 모아놓은 명반들을 헐값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험상내가 살던 버지니아주보다는 메릴랜드주에 클래식 애호가들이 더 많았고 메릴랜드주에서도 유대인들이많이 사는 동네에서 '횡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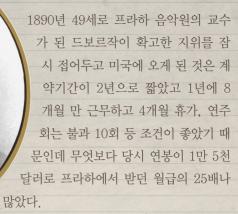
LP 가게의 경우 D.C. 시내 젊은이들의 거리로 불리는 듀폰 서클 위쪽으로 몇 군데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새로운 LP와 중고 LP들을 함께 판매했다. 내가 살던 집 근처에도 1976년에 설립됐다는(가게 유리창에 적혀 있었음) 중고 LP를 파는 가게가 있었다. 한국의 조그만 분식집처럼 좁았지만 벽면과 중앙 판매대에 중고 LP들이 장르별로 빽빽하게 진열돼 있었는데 팝뮤직 LP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클래식은 10% 정도에 불과했다.

그래도 유럽의 유명 음악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가 주요 관현악단의 지휘자를 맡거나 독주자로서 맹활약하면서 세계 고전음악계를 이끌던 전성기에 발매된 RCA와 CBS 음반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었다. 그곳의 LP 가격은 팝이나 클래식관계없이 기본이 장당 1달러였는데 판매 LP의 절반 정도가 1달러에 팔렸다. 하지만 팝뮤직의 전설 비틀즈나 롤링 스톤즈, 록 그룹인답 퍼플이나 레드 제플린의 LP는 상태에 따라 몇 십 달러를 호가했다. 클래식은 대부분 1달러였지만 간혹 2~3달러 짜리도 있었는데대표적인 사례가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음반이었다. 체코의 유명 작곡가 드보르작이 신대륙 아메리카에서 작곡한 이 곡이 미국인

#### •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e단조 '신세계에서'

드보르작이 뉴욕 국립음악원 초청으로 1892년 9월 뉴욕에 도착해 그 이듬해 1월에서 5월까지 작곡한 교향곡.

들에게 유독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도 조금 비쌌던 것이다.



모두 4악장, 연주 시간이 40분 정도로 전 악장 가운데 2악 장 라르고가 가장 유명하다. 2악장의 선율만 합창곡으로 불 리기도 한다. 힘차고 격렬한 4악장에서는 1, 2, 3악장의 주 요 주제가 차례로 등장한다.

드보르작은 같은 시대에 평생을 우울하게 지낸 브람스, 노이로제에 시달렸던 차이콥스키, 차이콥스키 보다 훨씬 중세가 심했던 말러, 신의 계시를 기다리며 두려움에 떨었던 브루크너, 뒤틀린 이기주의자였던 바그너, 복잡한 성격의 잘난 체했던 리스트와는 달랐다.

'신과 사랑, 조국'만을 생각하며 삶을 매우 경이롭게 여긴 정신적으로 건강한(?) 작곡가였다. 그의 오페라 '루살카' 중에서 물의 요정이 부르는 'Song to the Moon'을 들어보라. 사랑하는 이에게 전해달라며 부르는 이처럼 애절하고도 아름다운 곡이 또 있을까?



#### [추천 음반]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명곡인 만큼 수십 종의 음반이 나와 있다.

본 고장 연주인 바츨라프 노이만 지휘, 체코 필하모니 관현악단(수프라폰)와 라파엘 쿠벨릭 지휘, 베를린 필하모니 관현악단 (그라모폰), 프리츠 라이너 지휘, 시카고 교향악단(RCA),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지휘, 베를린 필하모니 관현악단(그라모폰)의 연주를 추천한다.

## 미나레트… 사막의 등대



김호성 실장 | 기획조정실

지난 2000년 뉴밀레니엄 특집 '새 천년을 꿈꾸는 땅' 특집 프로그램 제작 당시 취재 기자로 몽골 – 중국 – 중앙아시아를 횡단하는 2만 km 대장정에 참여했다.

"나는 귀를 트고 들으며, 눈을 뜨고 보며 앉아 있었다.

나는 사탕보다도 달고 향그러운 과일의 맛을 즐겼다.

나는 행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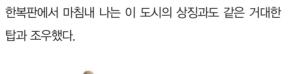
나는 눈을 감았지만 혹시 잠이 들어 이 모든 행복을 상실할까봐 다시 떴다. 부하라의 유명한 레기스탄 광장이 내 앞에 한적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 / 영혼의 자서전 중에서

뉴밀레니엄을 앞둔 1999년, 나는 실크로드를 횡단 하고 있었다. '새 천년을 꿈꾸는 땅'이란 특집 취재차 였다.

베이징을 출발해 황하 건너 란저우, 하서회랑을 통과한 뒤 타클라마칸을 가로질러 카자흐스탄을 거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를 지 나 부하라에 도착했을 때, 계절은 기을의 길목으 로 접어들고 있었다.

중앙아시아 최대의 이슬람 성지, 고색창연한 잿빛 현장







부하라(Bukhara)는 산스크리트어로 '사원'이라는 뜻이다. 수천 년 에 이르는 탑이었던 것이다. 전부터 서역과 중국을 잇는 실크로드의 중요한 오이시스 도시였다. 이름에 걸맞게 도시 자체가 하나의 사원이다. 그 분위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대표적 건축물이 바로 '칼란 미나레트'이다. 칼란은 페 르시아어로 거대한이란 뜻이니, 이름 그대로 '거대한 미나레트'를 말한다. 미나레트의 아랍어 어원인 '마나라'라는 말은 '빛을 두는 곳' 즉 촉대, 등대, 감시탑 등의 뜻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오늘 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서 이슬람교도들이 마음 편히 다니기 힘 날 미나레트는 흔히 '광탑(光塔)'이라 불린다.

사막을 건너온 대상들에게 불을 밝혀 길잡이가 되어주던 곳. 부하 결로 현지 상황을 전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였다. 라의 심볼, 1127년 카라한 왕조 시대에 축조, 높이 46m, 기단부 직 경 9m, 상층부 6m, 105계단. 이 미나레트를 중심으로 칼란 모스크 와 당시의 신학교라고 할 수 있는 메드레세. 카라반들이 모여들었 을 트레이드 센터, 서민들의 시장 바자르 등이 포진해 있다. 망루 같 은 첨탑 맨 꼭대기에 불이 지펴지면 미나레트는 사막 한가운데 자 리잡은 오아시스 도시의 아이콘이 됐다.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그 것은 바다 한가운데서 조난을 당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바 다. 해 질 녘 '칼란 미나레트' 앞 레기스탄 광장에 모여 마음 놓고 로 그 같은 상황에서 사막을 횡단하는 카라반들에게 오아시스 도시 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정표 역할을 해준 것이 바로 미나레트였 다. '사막의 등대'였던 셈이다. 웅장한 '칼란 미나레트' 앞에 서면 한 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느끼게 된다. 서역 정벌에 나섰던 칭기스칸 내 마음속의 불빛, 조차도 '칼란 미나레트'의 위용 앞에서 결국, 이 건축물을 파괴하지 사막의 등대. 말고 보존하도록 했다는 일화가 전설로 전해온다.

중앙아시아 최대의 미나레트인 '칼란 미나레트'는 그러나 한 그곳에, 때 '죽음의 탑'이란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18~19세기 부하라의 죄수들을 바로 이 탑의 꼭대기에서 내던져 처형했기 때문이다. 오아시스로 인도하는 생명의 탑이 한때는 죽음

'뉴밀레니엄 특집' 제작 2년 뒤인 2001년 9.11 당시 나는 뉴욕 에 있었다. NBC 건물 외벽에 "우리는 21세기 첫 번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부시의 메시지가 뉴스 스크롤로 연신 흐르고 있었다. 맨해튼 시내는 미국인들의 이슬람에 대한 적개심 든 상황이었다. 실제로 한밤중 이들에 대한 테러가 자행되기도 했 다. 한인 실종자 명단 특종 보도 등 하루 평균 열댓 차례씩 전화연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는데 길모퉁이에 'Bukhara Grill'이라 는 레스토랑이 눈에 들어왔다. 2년 전 부하라에 가본 적이 있다는 내게 식당 주인은 마치 고향 사람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면서 테 러 이후의 상황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다. "두렵다. 보복에 절대적 으로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 친구들과 공차고 놀던 때가 좋았다."

여전히 그곳에선 소년들이 축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칼란 미나레트.

다시 가고 싶다.



## 지-31-선물꽃축제 2016'을 ロカア・・・

변재철 차장 | 미디어사업국 문화사업팀

벌써 20여 년이나 지났나 보다. TV 화면 속에서 3D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YTN의 로고가 황금빛 영롱한 가루를 흩뿌리며 한국 최초의 뉴스 채널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이, 그때 그 ID 그래픽은, 어느 누군가에겐 '불꽃놀이'를 떠올리게 했었다. 패기 가득한 젊은이들로 가득 찬 YTN이 한국을 대표하는 뉴스 채널로 자리 잡을 것을 미리 축하하는, 그런 불꽃놀이 말이다.

억지스럽지만, 어쩌면 YTN과 불꽃놀이는 그렇게 뗄 수 없는 인연 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올해로 겨우 세 번째 행사였고, 게다가 수 십 년 만의 폭염이 국민 모두를 허덕이게 했지만, 적게나마 수익을 낼

> 수 있었으니 말이다. 자라섬 축 제로는 제일 유명한 자라섬 재즈페스티벌도 흑자를 내 기까지 7년이 걸렸다고 한

5월 봄나들이 철에 맞춰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여름 휴가철을 정면 공략했다. 8월 12일부터 광복절 휴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를 노렸다. (이렇게 더울 줄 미리 알았더라면 좀 달라졌을까?) 행사 는 아름다운 자연과 여유로운 휴식을 느낄 수 있는 자라섬에서 불 꽃축제와 넌버벌 퍼포먼스(Non-verbal Performance), 캠핑이라는 키워드를 담아낸 융복합 페스티벌로 기획됐다. 여기에 인디밴드와 비보이, 비트박스 공연들이 불꽃놀이를 더욱 화려하게 만들어 줬다.

특히 세종대 무용단 '춤다솜'이 펼친 댄스 뮤지컬 '키스 더 춘향'은 춘향의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장구춤에서부터 클럽댄스에 이르는 다양한 춤으로 신명 나게 연출됐다. 다양한 특 수 효과와 최첨단 연화 장치들 덕분에 국내 최 초의 '퍼포밍 불꽃 쇼'로 기록될 만 했다. 세종대 무용단은 특히 체코 프라하 에서 열린 '세계 춤 페스티벌'

에서 그랑프리(1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무용단이어서, 불꽃 축제 으로 남기는 했지만, 한여름 불꽃 축제는 이만하면 꽤 성공적이었 의 품격을 한껏 높여줬다.

메인 스테이지가 차려진 중도 옆 서도에는 여유롭게 행사를 즐 기려는 가족이나 연인들을 위한 특별 캠핑장도 마련됐다. 무 려 천6백 명이 동시에 캠핑이 가능한 규모에, 오토 캠핑과 이지캠핑, 카라반 캠핑 등 좋아하는 스 타일에 따라 캠핑 패키지를 고를 수 있어서. 장비 없이도 '불꽃놀이 캠핑'의 추억을 만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북한강 맑은 물소리 들으며 별 총총 가득한 밤하늘을 덮고 잔 뒤, 물안개 자욱 하게 피어오르는 호숫가의 아침을 맞는 것은, 아는 이는 다 아는 자라

사실 수십 일 동안이나 30도를 넘겨버 린 기록적인 더위는, 역설적으로 행사를 준비하 는 스태프들의 마음을 꽁꽁 얼려버릴 만했다. '이런 더위라면, 나 라도 오기 싫을 거야'란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불꽃축제'의 매력은 더위조차 태워버린 듯 겨 주지는 못하겠지만, 창작이나 문화예술 등 우리가 소극적이었

평일이었던 첫날 2천5백여 명을 시작으로 다음 날부턴 그 세 배 가 넘는 '불꽃바라기'들이 모여들었던 것이다. 놀라웠고, 또 고마 웠다. 폭염 속에서 방송하느라 고생한 김유진 캐스터와 중계부 사 우들의 노력이 한몫을 했던 것 같다.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도전"이 란 이름으로 진행된 물총 싸 움이 기네스 기록 달성에 실패한 것이 아쉬움

섬 캠핑의 묘미다.

다고 본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내가 '공연기획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난 뒤라. 행사를 준비하면서부터 보이는 시야가 달랐다. 초

> 기 사업 전략부터 행사 콘텐츠. 관객 타케 팅, 홍보전략, 정부 지원금 신청 등등… 하지만, 이번 축제에서는 우리가 맡은 역할이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다 음 기회를 위한 노하우 축적으로 만족해야 했다.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많은 미디어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을 찾는다고 난리들이다. 특히 '알파 고'나 '왓슨'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컴퓨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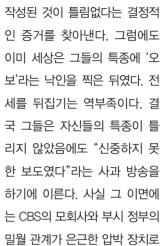
들은 이미 우리의 주력 상품인 '기사'까지 생산해

내기 시작했다. 뉴스로 먹고살던 미디어들의 미래가 걱정스러워 지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불꽃축제'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불꽃축제가 '대박수익'까지 안 던 분야에도 더 마음을 열고, 다양한 콘텐츠 사업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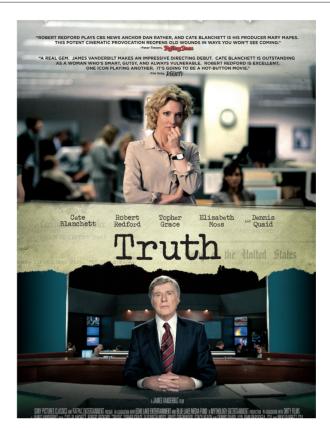
위한 열정을 불태우는데 작은 불꽃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다.

WATER WAR

GUINNESS CHALLENGE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달 24일 국내에 개봉한 〈트루스〉는 미국 방송 언론에 있어서 매우 의미심장한 실제 사건을 영화로 옮겼다.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 상한 〈스포트라이트〉를 비롯 해, 메카시즘 광풍 속에서 진 실 추적에 나섰던 에드워드 R. 머로우의 이야기를 담은 〈굿 나잇 & 굿럭〉, 쇼 프로그램 저 널리스트가 워터게이트 사건 을 놓고 퇴임한 닉슨 전 대통 령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판 기싸움을 벌였던 일을 영화화 한 〈프로스트 vs 닉슨〉 등 미 국에선 언론에 대한 이야기 가 꽤 자주 영화로 만들어진 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수

정헌법 제1조로 규정한 미국의 언론 지형에선 어쩌면 당연한 풍경 일 것이다. 그만큼 그들에게 세상과 언론의 관계 맺기는 영화에서 도 아주 중요한 화두인 것이다.

어쨌든 이번에 소개할 영화 〈트루스〉도 그런 면에서 현직 언론인 은 물론, 무한 경쟁의 언론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꽤 깊이 있는 시사점을 안겨준다. 영화가 조명하는 주인공은 한국 에도 잘 알려져 있는 미국 CBS의 유서 깊고 권위 있는 시사 프로 그램 '60'분이다. 이 프로그램의 프로듀서 메리 메이프스는 굵직한 특종을 많이 만들어내기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런 그녀가 2004년 부시 전 대통령의 재임 선거를 앞두고 대형 특종의 냄새를 맡게 된 다. 그것은 바로 부시 전 대통령이 베트남전 참전을 기피하기 위해 아버지 부시의 인맥을 동원해 일부러 베트남전에 참전할 일이 없 는 미 방위군 공군 조종사가 된 데다. 훈련조차 불성실하게 했다는 것.

현직 대통령의 병역 비리를 파헤친 이 특종은 결국 전파를 타게 된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녀가 입수한, 부시의 군 시절 상관 들이 작성했던 서류 증거들이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져 나 온다. 서류가 당시 썼던 타자기가 아니라 요즘 쓰는 컴퓨터의 워드

영화 〈트루스〉는 말 그대로 '진실'이라는 뜻이다. 요컨대 가장 자 유로워야 할 언론조차 경쟁사의 깎아내리기와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다. 경쟁사들은 심지어 메리 메이프스의 정치적 성향까지 문제 삼았다. 그녀가 부시를 원래 싫 어했기 때문에 악의를 갖고 짜 맞추기 취재를 했다는 식이다.

이 영화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게 언론의 역할 임에도 불구하고 증거의 조작 여부를 놓고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정작 부시 전 대통령의 군 시절 비리에 대한 진실은 증발되고 마는 상황, 그러니까 취재 방식의 타당성 논쟁의 늪에 빠져 진실이 묻혀 버리고 마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증거가 타자기에 의 해 작성된 것이냐 워드에 의해 작성된 것이냐가 중요해지는 사이 에 정작 부시 전대통령의 병역 비리 여부는 어느새 그리 중요한 문 제가 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참으로 시사적이지 않은가?

케이트 블랜쳇이 실존 인물 메리 메이프스 역을 훌륭하게 소화해 냈다. 모처럼 중견 배우 로버트 레드포드가 앵커 댄 레더 역을 중 후하게 연기했다. 참고로, 이 보도에 간여했던 이들은 모두 부시 재 임 직후 CBS에서 해고되었다.





진실은 어디에?

**최광희** | 영화평론가



**최재용** 차장 | 시청자센터 커뮤니케이션팀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이병헌이 한데 뒤엉켜 거친 몸싸움을 하고, 톰 행크스와 배두나가 같은 영화에 나란히 등장하는 세상. 해마다 천만 관객을 넘기는 영화 가 한두 편쯤 나오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시대. 배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작사, 투자. 배급사들 모두가 한목소리로 "카르페 디엠!" (의역하면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정도가 되겠다.)을 외치고, 관객들은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모 업체의 아이스크림처럼 작품성과 흥행성을 두루 갖춘 다양한 영화들을 골라가면서 즐길 수 있는 잔치판이 벌어진 지금, 한 켠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누군가가 있으니… 바로 YTN이다.

#### #2. "대한민국의 안전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터널 붕괴' 소식을 전하는 앵커의 얼굴, 왠 지 낯이 익다. 눈썰미가 있는 관객들은 금세 알아챈다. 그가 바로 뉴스채널 YTN의 앵커 송경철이라는 것을, 관객들은 영화 〈터널〉의 사이사이에 그와 함께 등장하는 김선희, 김대근 앵커의 뉴스 속보 장면을 보며 허구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영화 속으로 빠져든다.

#### #3. YTN은 촬영 중

1층 오픈 스튜디오에서 조인성이 라디오를 진행하고 〈드라마\_ 괜찮아 사랑이야〉, 3스튜디오의 블루스크린 앞에서는 기상캐스터 문채원이 상큼한 표정으로 오늘의 날씨를 알려준다. 〈영화\_오늘 의 연애〉, 이종석과 박신혜는 YTN 사옥의 이곳저곳을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드나들고 〈드라마\_피노키오〉, 생방송을 준비하는 앵 커 김아중은 원고를 정리하며 목소리를 가다듬는다. 〈영화\_더 킹〉

#### #4. 영화 속 YTN

2015년의 최대 히트작 〈내부자들〉의 피날레를 장식한 뉴스채널 이 YTN이었고, 황정민과 정우가 〈히말라야〉를 오를 때 입었던 휴 먼 원정대의 우모복에 부착된 메인 스폰서 로고가 YTN이었다는 사 실을 알고 계신지? 만약 그 영화들을 못봤다면. 그래서 믿지 못하 겠다면, 개봉을 앞두고 있는 〈아수라 정우성 / 황정민 / 곽도원〉, 〈살인자의 기억법 설경구 / 김남길〉, 〈더 킹 조인성 / 정우성 / 김아중〉, 〈마스터 \_ 이병헌, 강동원, 김우빈〉를 주목하시라. 대체불 가의 뉴스 아이콘으로 대세를 굳힌 YTN을 만나게 될 것이다.





미래자동차, 3천억원 비자금 조성 의

YTN의 PPL

007의 제임스 본드 가 사용하는 스마트 폰으로 자사 제품을 밀어 넣기 위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들이 약 500만 달러라는 거액

을 제시하며 PPL (Products in Placement, 간접 광고) 경쟁에 나섰 다가 무산이 된 적이 있다. 주연배우가 극구 반대를 했기 때문인데 제임스 본드는 초일류 제품만을 사용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 한국산 TV나 스마트 폰을 보았다면 그것은 십중팔구 기업들의 물밑 협상과 투자의 결 실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기업들이 이처럼 PPL을 위해 막대한 투 지를 아끼지 않는 것은 그로 인한 홍보 효과가 돈으로 환산할 수 고 판단이 내려지면 YTN은 매우 파격적인(?) 조건으로 넉넉한 촬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영화 (내부자들)

하지만 YTN의 경우, 오히려 거꾸로 수많은 제작사들이 구애를 하 며 손을 내미는 통에 그중에서 옥석을 골라내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YTN 말고도 쟁쟁한 매체들이 줄을 서 있는데. 결국 "한국의 CNN은 뉴스채널 YTN"이라는 것 말고 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영화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한 감독들의 최종 선택은 YTN인 것이다. 1995년 개국 이후로 20만 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온 끝에 이룬 쾌거이다.

#### #6. "YTN이죠? 영화 OOO의 제작부장 XXX입니다"

바람이 불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나는 대나무처럼, 요즘 상암동 YTN 사옥은 복도벽을 살짝만 건 드려도 "스탠바이 액션!!"을 외치는 소리가 날 지도 모른다. "YTN에서 촬영하지 못하면 바보"라는

소문(?)이 돌기라도 하는건지는 모르겠지 만 지금 이 순간에도 스튜디오 촬영 앵커 지원 협조 여부 등을 묻

#5.그들의 PPL, 는 로케이션 매니저, 제작부장들의 전화로 몇 해 전, 영화 커뮤니케이션팀(구 홍 보팀)의 전화기는 정수리 위에 걸린 올 여름 태양민 큼이나 뜨겁다. 그 때마다 마 지막으로 꼭 되묻는 말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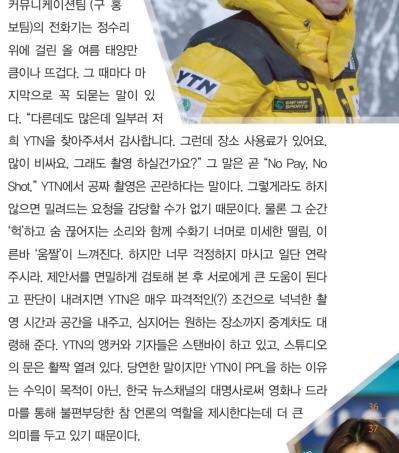
다. "다른데도 많은데 일부러 저 희 YTN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장소 사용료가 있어요. 많이 비싸요. 그래도 촬영 하실건가요?" 그 말은 곧 "No Pay, No Shot." YTN에서 공짜 촬영은 곤란하다는 말이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밀려드는 요청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 순간 '헉'하고 숨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수화기 너머로 미세한 떨림, 이 른바 '움짤'이 느껴진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연락 주시라. 제안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본 후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된다 영 시간과 공간을 내주고, 심지어는 원하는 장소까지 중계차도 대 령해 준다. YTN의 앵커와 기자들은 스탠바이 하고 있고, 스튜디오 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YTN이 PPL을 하는 이유 는 수익이 목적이 아닌, 한국 뉴스채널의 대명사로써 영화나 드라

#1. "대세다 대세!"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관객수 천만 명을 넘긴 한국 영화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배우가 있다. 조연이지만 웬만한 주연을 능가 하는 그 이름 오달수. 별명이 '천만요정'이란다. 그런데 YTN도 결코 만만치 않다. 그래서 한마디 하련다.

"너 천만요정 오닼수? 나 뉴스요정 YTN이야!'



### YTN 이 <sub>무</sub> 저 <sub>무</sub>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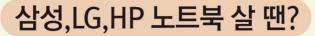
## 오피니언 리더의 대화 채널 YTN 5총 세트



# 슬쩍읽고번쩍뜨이는 지스토투







오직 대학생만 가능한 할인 이야기!

## 교육할인스토어

와이군 닷컴 (www.ygoon.com)

